

# “관광을 미래 동력으로...지역 변화 모색”

제6회 광주매일신문관광대상 시상

광주 광산구·광양시 ‘종합대상’  
‘친환경 축제’·‘체류형 관광’ 호평  
특별상은 김흥준·김형열씨 수상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광주매일신문은 1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에서 수상 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관광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관광대상에서는 광주 광산구(광주시장상)와 광양시(전남지사상)가 각각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광산구는 황룡진수공원을 활용한 축제 ‘광산뮤직ON페스티벌’을 통해 지역민과 외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황룡진수공원 잔디광장을 음악과 피크닉이 어우러진 감성 공간으로 꾸민 축제는 올해 1만5천여명이 찾으며 광산구만의 관광자원으로 주목 받았다.

메인 공연과 공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한 ‘뮤직피크닉존’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했으며, 선운지구 상권과 연계한 ‘달리버리존(배달존)’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여기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다화용기 도입 등 친환경·포용형 축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광양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축제와



지역 관광 우수사례를 조명하는 ‘제6회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일상 속에서 누리는 관광문화도시’ 위상을 높이고 있다.

광양 마화축제는 차량·바가지요금·일회용품이 없는 3무(無) 운영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광양 K-POP 페스티벌은 불꽃쇼·팝투어·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전국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운동주 테마 관광, 남파랑길 걷기 프로그램 등 역사·자연을 연계한 특색 관광도 운영 중이며, 섬진강권역 위케이션센터·휴게정원 조성, 섬진강스테이 브랜드 개발 등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도 확장한다. 이와 함께 구룡산 종합관광단지, 배알도·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확충을 추진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이날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은 순창발효관광재단과 (사)대동문화재단이, MICE 부문 최우

수상은 광주관광공사, 행사기획부문 최우수상은 ㈜티나엔터테인먼트, 숙박업 부문 최우수상은 라마다플라자 총창호텔, 여행업부문 최우수상은 투어스테프가 받았다.

또한 트렌드와 시의성을 반영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기획으로 기획 및 기관 방문 전문 여행업체를 운영 중인 김흥준 투어스테프 대표, 식음 전문가로서 광주 흥보대사 역할을 해오고 있는 김형열 라마다플라자총창호텔 식음팀장이 특별상을 받았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광주매일신문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분야보다 관광산업이 가진 부가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오랫동안 관련 기획과 아젠다를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직자, 관광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상을 받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천혜의 공간을 활용해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온 점이 인정받은 것 같다”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강화해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전남지사상을 수상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새로운 콘텐츠 확대를 머무는 관광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3대 권역 관광개발을 본격화해 광양을 더욱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축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 수상자는 ▲혁신적 축제·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축제 및 관광자원화 ▲신규 상품 개발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최명진 기자

## 전주현 무안경찰서 경사, 위기가정에 ‘희망 노트북’

사건 수사 인연 고3 학생에 기증

사건 수사로 인연을 맺은 위기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넨 경찰관이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11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과와 여성청소년수사팀 전주현(사진) 경사는 올해 3월 무안읍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사건을 접했다.

결보기엔 단순 가정 폭력 사건이었지만, 전경사가 들어다본 내막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극이 서려 있었다. 당시 A군은 집에 컴

퓨터가 없어 스마트폰 작은 화면으로 학교 과제(PDF 파일 작성)를 수행하다가 누락된 스트레스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설상가상으로 A군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는 최저소득층으로, 홀로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는 중증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경제적 빈곤과 디지털 격차, 돌봄 부재가 얹힌 ‘복합 위기’ 상황이었다.

사건 담당자였던 전 경사는 기계적인 법 집행보다는 실질적인 구호가 절실하다고 판단, 죄책감에 시달리며 학업을 포기하려는 A군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선물 기증했다.

전 경사는 또 무안군청에 해당 가정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앞장섰다.

전주현 경사는 “소년법 수사를 하다 보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매번 느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A군이 학업을 이어가고, 이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서 우수 봉사자 67명 표창

자원봉사 영예인증 911명 신규 등록

광주시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기념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2025 광주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정 시장, 신수정 시의회의장과 시의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활동 홍보영상 상영,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퍼포먼스, 정부 포상 및 시장·의장상 시상, 영예인증서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에서는 김대석 재난대응봉사회 전국협의회 부회장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문순자 서구자원봉사센터 동명동캠프장, 이영자 동구자원봉사센터 동명동캠프장, 정정례 나누미봉사단 회장, 최정주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홍예순 전남대학교병원봉사단 회장, (사)솔잎벚꽃가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서광순 서구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 양복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 조복순 진월동 7979봉사단장이 받았다.

또 광주시장상 19명, 광주시의회 의장상 6명, 중앙센터장·센터협의회장상 32명 등 총 6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사활동 누적시간에 따라 부여하는 자원봉사 영예인증에는 1만 시간 이상 봉사한 봉사원 67명을 포함해 총 911명이 신규로 등록했다.

/변은진 기자

## 박준수 GTMBA 제7기 회장 취임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제7기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9일 담양의 한 식당에서 원우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정순임 회장(다인시스템 대표)이 1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후임으로 언론인 출신 박준수(사진 앞줄 오른쪽 세 번째)회장이 취임했다.

박준수 신임 회장은 “지난 10년간 역대 회장님들이 땀 흘려 가꾼 옥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박 회장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



년 언론계에 입문해 32년간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상무이사, 부사장,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선욱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격려

영광군은 11일 “전날 장세일 군수가 군 환경관리센터를 찾아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장 군수의 이번 방문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군수는 시설 근로자 19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고 근무 중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소각시설 40t 증설 사업과 매립장 수직증설 사업 등 센터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주문했다.

장세일 군수는 “현장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값진 땀방울 덕분에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영광’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현장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스포츠산업 대상’ 문체부장관 표창



김민철(사진)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11일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에서 개인공로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10여년간 160여편의 논문과 정책·용역 보고서를 집필하며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 발전 전략과 스포츠관광 활성화, 동계전지훈련 및 프로 스포츠 연계 정책 등을 연구했다.

또 각종 스포츠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와 스포츠이벤트·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체육진흥증장기 계획 수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지역스포츠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했다.

김민철 교수는 “이번 상은 지역에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땀 흘려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눈 성과”라며 “앞으로도 스포츠가 지역의 미래산업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오고 있다. /박선욱 기자



## 순천경찰, 하반기 안보자문협 정기회의

순천경찰서는 “최근 2025년 하반기 안보자문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자문협의회장과 협의회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진 이·취임, 신규회원 위촉장 수여, 치안 현황 소개와 함께 공공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안보 공감대 형성과 치안 활동 참여로 민·경 협력치안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매년 명절에 위문품 전달과 다양한 문화탐방 행사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대현 경찰서장은 “탈북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이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 행사

▲이규현의 ‘대술바람’ 출판기념회&북콘서트(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13일(토) 오후 2시 담양문화회관,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29, 010-4642-0942.

## 결혼

▲문명열(전 금파공고 교사)·유민숙씨 아들 준희(해남 우수영초 교사)군, 윤영기(광주일보 정치·경제담당 에디터)·김선희씨 딸 해원(해남 황산초 교사)양=13일(토) 오후 12시 광주 글로리아웨딩홀(옛 데일리웨딩컨벤션) 1층 라비아홀.

▲김성택·김광순씨 아들 옥진군, 이해용·박옥실씨 딸 송희양=13일(토) 오후 4시 메리포레웨딩홀 메이에르홀(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예회관빌딩(0507-1401-4170).

▲이정형·강영희씨 아들 원창군, 신승식·오형욱씨 딸 현선양=13일(토) 낮 12시20분 Jn아트컨벤션 2층 제이드팔리스홀(경기 광명시 비전5로 20-46). 031-653-5300.